

# JB금융그룹, 2조 넘는 '상생 지원' 보따리 꾸민다

### 서민금융 1조2천450억·소상공·중소기업 9천800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취약계층 난관 극복 원동력되길”

JB금융그룹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2조2천25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JB금융은 31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은행은 5천95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6천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2천250억원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은행 지원 내용은 ▲햇살론뱅크 3천억원 ▲주택담보대출 1천500억원 ▲최저신용자 지원 1천억원 ▲새희망홀씨 45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특별자금지원을 통한 5천500억원 ▲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800억원 자금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은행 역시 6천5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3천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은행 지원 내용은 ▲햇살론뱅크 5천억원 ▲최저신용자 지원 500억원 ▲새희망홀씨 500억원 ▲만기연장지원 50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특별자금지원을 통한 500억원 자금지원 등이다.

특히, JB금융그룹은 대표 서민금융 지원상품인 '햇살론뱅크' 지원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해 244억원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1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으며, 전북은행은 5천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 5천500억원, 전북은행 3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1% 금리 감



이복현 금감원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 지역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은행 제공>

면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은행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특화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취약자주 가계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용금융특별대출 금리우대(최대 2%)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7% 초과 고금리 대출 및 보증서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우대(최대 1%)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연체 대출금 이자 감면을 시행하고 부실채권 소각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어신 및 만기 연장 시 금리우대(최대 0.7%)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JB금융그룹은 비금융지원을 동시에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양행 모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행은 취약계층 상담전용센터 운영을 통해 고금리 대출대환 등 부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광주·전북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방안이 지역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 광주상의, 中企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 R&D 사업계획서 작성 등 소개...기관별 상담코너 운영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오는 9월 오후 2시 7층 대회의실에서 'R&D 사업계획서 작성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 개최한 '미래신산업 진출 합동설명회' 참

석자들의 R&D중심 지원시책 설명회 추가개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2023년 지역혁신 프로젝트 '미래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유관기

관 지원사업 소개, 성공적인 투자유치 및 정부R&D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관별 개별 상담코너를 운영해 각 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합동설명회 참여 기관은 광주상의(미래신산업 진출)를 비롯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업도약보장패키지)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R&D지원사업)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광주경영자총협회(뿌리산업 구인난개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이노비즈 인증제도) 등 6개 기관으로 R&D, 일자

리사업 위주로 지원시책을 소개한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임직원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가 가능(기념품 증정)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문의: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 062-350-5891)하면 된다. /임채만 기자

## 광주 21세기메디칼·브라질 CIMED 年100만불 상당 수출 협약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31일 “브라질 바이어 CIMED를 초청해 광주 대표 헬스케어 수출기업 21세기메디칼과 연 100만불 상당의 수출 및 양국간 무역 증진을 위한 수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2009년 설립된 의료용 수술실과 주사침 수출 전문기업 21세기메디칼은 2016

년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2년 광주시 예비-명품중소기업에 선정된 지역 의료기기 수출 대표주자기업이다.

신미향 21세기메디칼 대표이사는 무협 산하의 광주전남헬스케어수출기업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지역 내 헬스케어 무역업체의 이익 대변과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증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 바이어 CIMED는 1977년 창립한 제약, 건강식품, 개인관리 및 미

용 관련 유통을 전문 기업으로, 2022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규모의 대기업이다.

행사를 주관한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브라질은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117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귀중한 무역 파트너이다”며 “코로나19 엔데믹 원인을 연 21세기메디칼과 CIMED의 파트너십이 두 기업만의 교류를 넘어 광주·전남과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서원 기자

## 오비맥주, 플라스틱 사용 본격 감축

### “내년까지 재활용 페트로 교체...재생원료 25% 포함”

오비맥주가 본격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나선다.

31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내년까지 제품 페트병을 재생 플라스틱이 25% 함유된 재활용 페트(rPET)로 교체한다.

오비맥주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오비맥주는 페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순수한 원료를 추출한 뒤, 이를 활용해 재활용 페트를 제조한다.

오비맥주는 맥주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25%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1천t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비맥주는 맥주 라벨과 병뚜껑, 종이 재질의 포장재 등을 재활용하는 방



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ESG선도기업으로서 재활용 페트병 도입을 시작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플라스틱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기왕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살거리가 풍부한 목포 자유시장 남진 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남진야시장 운영 : 2023년 3월 17일 ~ 연중 (금, 토요일 17:30~21:30)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목포시** 문의 : 062)650-2099